

경맥 [經脈]

기혈이 순환하는 기본 통로. 경락 계통에서 곧추 가는 원줄기이다. 경맥에는 십이경맥(十二經脈), 십이경근(十二經筋), 십이경별(十二經別), 기경팔맥(奇經八脈) 등이 속한다.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,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. 이 경맥을 통하여 경기(經氣)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 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.

경별 [經別]

달리 십이경별(十二經別)이라고도 부름. 십이경맥[십이정경(十二正經)]에서 갈라진 경맥. 수태음경별(手太陰經別) · 수양명경별(手陽明經別) · 수厥음경별(手厥陰經別) · 수소양경별(手少陽經別) · 수소음경별(手少陰經別) · 수태양경별(手太陽經別) · 족태음경별(足太陰經別) · 족양명경별(足陽明經別) · 족厥음경별(足厥陰經別) · 족소양경별(足少陽經別) · 족소음경별(足少陰經別) · 족태양경별(足太陽經別) 등이 있다.

팔꿈치와 무릎 위에서 각 1개씩 정경(正經)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위로 올라가다가 표리(表裏) 관계를 가진 경별들이 함께 표리 관계를 가진 장(臟)과 부(腑)에 연계되고 목과 머리 · 얼굴에서 양경별(陽經別)은 갈라져 나온 정경(正經)으로, 음경별(陰經別)은 표리 관계를 가진 양경(陽經)으로 들어간다. 이리하여 표리 관계를 가진 6개 양경별과 음경별은 6쌍을 이루는 데 이것을 육합(六合)이라 한다. 경별은 표리 관계의 경맥과 장부들 사이의 밀접한 연계를 보장한다. 그러므로 음경의 침혈들로 양경의 치료 범위에 속하는 얼굴 · 머리 · 목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.

십오락맥 [十五絡脈]

또 십오별락(十五別絡) · 십오락(十五絡) · 별락(別絡)이라고도 일컬음. 낙맥들 중에서 그 이름이 있고 일정한 순행 부위와 병증후가 있는 15개의 낙맥. 십사경맥(十四經脈)에 각 1개와 비경(脾經)에서 1개 더 있어서 모두 15개가 있다. 갈라진 경맥의 이름에서 장부 이름과 ‘경’자를 빼고 그 대신 ‘별락’ 또는 ‘낙맥’이라는 말을 뒤에 붙이거나 그 낙맥이 갈라져 나온 혈(穴) 이름을 붙인다. 예를 들면 수태음폐경(手太陰肺經)에서 갈라져 나온 것은 수태음별락(手太陰絡脈) 또는 열결(列缺)이라는 것 등이다.

기경팔맥 [奇經八脈]

십이경맥(十二經脈)과는 달리 오장 육부와 연계가 없고 일부 기항지부(奇恆之府)와 연계되어 있는 8가지 경맥. 기경팔맥에는 독맥(督脈) · 임맥(任脈) · 충맥(衝脈) · 대맥(帶脈) · 음유맥(陰維脈) · 양유맥(陽維脈) · 음교맥(陰蹻脈) · 양교맥(陽蹻脈)이 속한다. 독맥과 임맥 · 충맥은 포궁(胞宮)과 연계되어 있고 독맥은 뇌(腦)와도 연계되었다. 독맥과 임맥은 십이경맥과 마찬가지로 경혈(經穴)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경맥을 합하여 십사경맥(十四經脈)이라 한다. 기경팔맥은 십이경맥의 작용을 보충해 주고 몸의 영위기혈(營衛氣血)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.